원유 수입선 중동 이탈현상 가속

2010년 동아시아 112만배럴 순수입 ... CIS 원유 수입량은 증가

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의 2010년 석유제품 수급밸런스는 1일 112만배럴의 순수입 상태로 전환되고 중국은 100만톤을 넘는 수입국이 될 전망이다.

일본에너지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아시아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급분석에 따르면, 2020년 동아시아의 석유제품 수입량은 2001년에 비해 1일 880만배럴 증가하지만 구소련 원유 수입의 증가로 중동 의존도는 2001년에 비해 4%p 낮아져 74%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.

석유제품 시장에서는 중국수요 증가와 무역규제 철폐 및 정제능력 증강 등이 진행되고 있다.

중국의 석유 정제능력 1일 640만배럴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동아시아의 석유제품 순수입은 2001년 17만배럴에서 2010년에는 111만배럴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.

동아시아의 원유 수입량 비교

(단위: 100만bbl, %)

구 분	기 준	CIS 증설	증감률
총 수입량	19.6	19.7	0.1
중 동	14.5	13.2	▽1.3
아프리카	0.9	0.9	0.0
구소련	2.3	3.6	1.4
남 미	0.3	0.4	0.1
기 타	1.6	1.5	0.0
중동의존도	74%	67%	▽7%

의 수출이 줄어 부족분을 인디아, 중동제품이 커버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원유는 러시아의 나훗카용 원유 파이프라인(PL) 완공을 전제로 하면 동아시아의 순수입량은 1830만배럴에 달해 원유 자급률이 20%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다만, 예 비해 늘어난 수입량 880만배럴 가운데 25%를 구소련 원유가 차지해 중동 의존도는 74%로 낮아질 전망이다.

일본은 나훗카PL, 사할린 원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동 의존도를 2001년 89%에서 2010년에는 80%로 낮출 방침이다.

또 러시아의 원유 공급능력이 증가하면 구소련 원유 수입량이 140만배럴 증가해 중동산 원유 수입량은 130만배럴 감소하고 중동의존도가 67%로 하락할 전망이다.

대부분은 중국의 수급밸런스 차이에 의한 것으로 정유공장 가동률은 상승하지만 85% 수준에 그치며 자유화에 따른 석유제품 수입증가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.

중국이 100만배럴의 상압증류장치 증설과 2차장치 증설을 단행하면 동아시아의 순수입량은 31만배럴, 중국도 18만배럴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.

일본은 등유·경유 및 중유 수출을 확대하나 중국이 공급능력을 확대하면 중유만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만약, 일본이 공급능력을 1일 50만배럴 감축해도 동아시아 전체의 순수입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일본에서 중국으로

중국의 공급능력 확대 수급밸런스(2010) (단위: 1000bbl)

구 분	2001	기 준	중국확대
동아시아(일본 제외)	-173	-1,111	-306
중 국	-269	-1,027	-177
수출국	한 국	295	147
	타이완	181	280
	싱가폴	-12	296
일 본	-919	-269	-727
	나프타/LPG	-708	-644
	등유/경유	-64	184
	중 유	-26	204

<화학저널 2004/08/16>